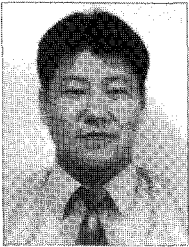


2010년도 하반기 계육산업 전망

하반기 닭고기 수급 및 가격전망



이형우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올해 연초부터 닭고기 공급 과잉에 대한 공포가 업계를 엄습했다. 그러나 종계 생산성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당초 예상치보다 국내 생산량은 적었다.

이러한 생산성 저하는 상반기 육계 가격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다. 국내 육계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닭고기 수입량 또한 2009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지난 1월과 4월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닭고기 소비에는 호재로 작용했다.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으로 닭고기 소비

는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닭고기 소비 증가 요인은 하반기에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육계 가격 고공행진은 4월 중순까지 이어지다가 5월 하순까지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육계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동안 600원대에서 형성되던 병아리 가격은 300원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최근 육계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병아리 가격 또한 600원을 회복했다. 병아리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육용 종계 도태가 지연되는 것이 문제이다. 오히려 국내 닭고기 생산은 2009년보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향후 여름철 복 경기와 하반기 육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조심스레 전망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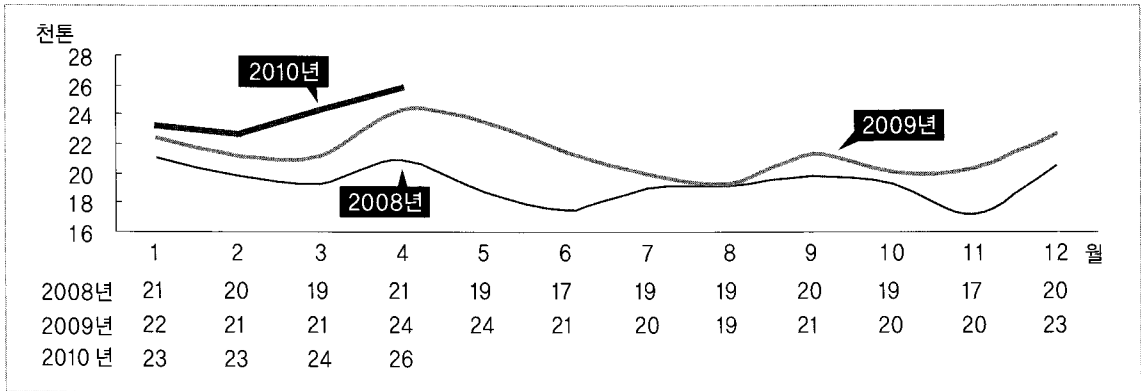
〈표 1〉 2010년 하반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 추이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010년(A)	119.1	113.4	108.5	108.6	114.4	121.3
2009년(B)	109.0	104.4	97.8	98.5	100.4	104.7
증감률(A/B, %)	9.3%	8.7%	10.8%	10.3%	13.9%	15.9%

※주 : 잠재력 지수는 입식된 최근의 육용 종계 생산성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7개월전 10개월 누적치를 이용하여 계산했으며, 2009년 1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100으로 함.

※자료 :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그림 1〉 육용 종계 배합사료 생산량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1. 하반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

2009년 종계 병아리 입식 마리수는 586만 마리로 2008년(521만 마리)보다 12.5% 증가했다. 2009년 7월 이후 종계 병아리 입식 마리수는 전년 동월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육용 종계 병아리 입식수수를 지표로 이용하여 2010년 하반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추정한 결과, 7월 닭고기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6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전년 동기보다 9.3%p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하반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지속적으로 2009년 동월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계 입식 마리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종계 사육 마리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0년 1~4월 육용 종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96,169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8.0% 증가했다.

한편 4월 말까지 병아리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2010년 1~4월 육용 종계 도태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2010년 들어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보다 높게 유지되고,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이후 하반기 사육수수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닭고기 공급과잉이 우려된다.

2010년도 하반기 계육산업 전망

하반기 닭고기 수급 및 가격전망

〈표 2〉 냉동 비축 현황(5월 30일 기준)

(단위 : 천수)

구분	미절단	절단	부분육	삼계	계
2010년(A)	146	5	115	127	393
2009년(B)	93	13	70	39	214
증감률(A/B, %)	56.9	-61.5	65.0	228.4	83.4

※자료 : 한국계육협회

〈표 3〉 닭고기 구매(소비) 지수

구분	1P	2P	3P	4P	5P	6P	7P	8P	9P	10P	11P	12P	13P
구매지수	92.0	94.7	94.1	97.0	93.6	101.6	117.6	133.2	104.0	94.1	93.9	93.2	90.9
비고	설수요		질병·황사 발생				초·중복		말복				

※주 : P는 4주이며, 구매지수는 2006~2009년 판매량의 월평균을 100으로 한 것임.

2. 닭고기 수입과 비축물량

올해 1~5월 닭고기 수입량은 3만4천톤으로 환율 상승과 국내산 닭고기 수요 증가로 수입량이 적었던 2009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5월 까지 환율이 전년보다 안정세를 보였고, 월드컵 특수 등으로 최근 국내 육계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7월 이후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30일 기준 닭고기 냉동 비축량은 393만수로, 닭고기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크게 감소한 전년 동기보다 83.4% 증가한 수준이다(계육협회 회원사 기준).

그러나 2010년 4월 25일 기준 냉동비축 물량이 251만수였던 것이 5월 30일 현재 393만

수로 약 140만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여름철 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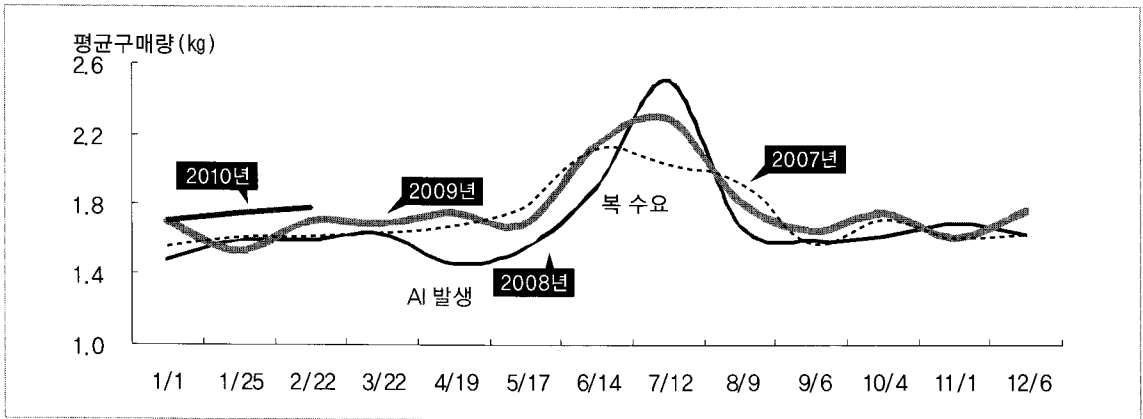
3. 수요

통상 닭고기 소비는 여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7월은 초복과 중복이 있어 연중 소비가 가장 많은 달이며, 육계 가격 또한 외부 충격이 없을 경우 강세를 보이는 달이기도 하다.

그러나 복절기 소비는 날씨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09년의 경우 복절기의 기상 악화로 7~8월의 소비는 일시적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여름철 무더위가 지속되면 닭고기 소비의

〈그림 2〉 가구당 닭고기 구매량



※자료 : Kantar Worldpanel Korea

호재로 작용하지만,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장마기간이 길면 오히려 닭고기 소비 부진 현상이 나타난다. 최근 3년간 소비자 패널자료 분석결과, 닭고기 수요는 여름철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1~3월)가구당 4주 평균 닭고기 구매량은 1.75kg으로 전년 동기(1.64kg)보다 6.3% 증가했다.

6월 월드컵 특수로 닭고기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7~8월 복수요와 8월부터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되어 국산 닭고기 소비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육계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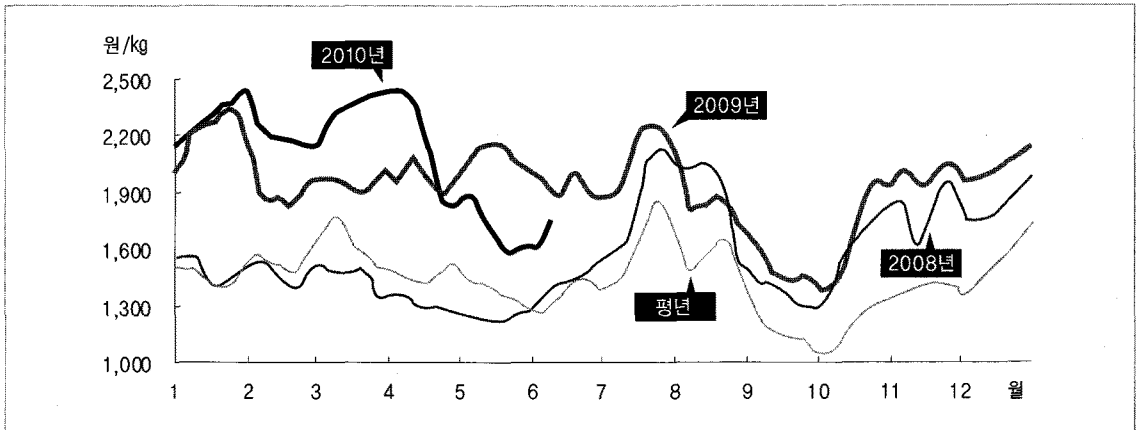
2009년에는 육계 사육수수 증가로 국내 닭고기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아리와 사료비 인상분이 가격에 반영되어 육계 평균 산지가격은 2008년(1,558원)보다 24.5% 상승한 1,939원/생체kg을 기록했다.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육계가격은 2009년 초부터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7월 이후 육계 산지가격은 사료가격 인하조치 등으로 전년대비 가격격차가 줄어들었으며, 일시적으로 전년보다 낮게 형성되기도 했으나, 병아리 가격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10월 이후에는 전년대비 높게 유지되었다.

2010년도 하반기 계육산업 전망

하반기 닭고기 수급 및 가격전망

〈그림 3〉 육계 산지가격



*주 : 평년은 2005~2009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협중앙회(5일 이동평균가격)

육계 가격 강세는 2010년 4월 초까지 이어졌다. 2010년 들어 추위 및 이상기온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병아리 가격이 2009년 11월 이후 600원대 이상을 유지하면서 고공 행진을 보임에 따라 생산 원가 상승분이 육계 가격에 반영되는 한편, 수요는 증가하여 4월 초까지 육계 가격은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0년 4월 이후에는 생산성 회복과 작년 7월 이후 종계 입식 마리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사육마리수가 증가하여 국내 닭고기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육계 가격은 전년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

사육 마리수와 수입 및 비축 물량이 모두 증

가하여 닭고기 총 공급량은 2009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7~8월에는 복 경기 수요 증가와 배달용 치킨 원산지 표시제 시행으로 일시적인 호경기가 예상된다.

그러나 9월 이후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비수기가 겹쳐지면서 육계 가격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공급과잉에 따른 육계 가격 약세가 전망되어 지속적인 종계 도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